'불교저널' 창간호 나왔다

새 불교 종합잡지 월간 〈불교저널〉이 선보였다.

8월호로 창간된 〈불교저널〉에는 특집으로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동반자인가 적인가'를 제목으로 인간복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제(권기종·동국대 교수), 인간복제 문제와 불교의 입장(호진스님·동국대교수), 인간복제의 윤리적 부당성(이용훈·수원 가톨릭대 총장), 인간복제와 자연(생명)의 본성(이정배·감신대 교수), 대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김원신·원광대 교수) 등 각 종교계의 관점을 수록하고 있다.

총 2백40쪽의 〈불교저널〉은 지구촌 불교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창간호에도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무엇이 태국불교를 괴롭히는가', '티벳 두사람의 판첸라마'를 비롯 파괴된 티벳사원 등을 화보로 소개하고 있다. 또 21세기 인류가 처할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미래사회와 불교'란 주제의 리영희교수와 정병조교수 석학대담을, 8·15 기념논단으로 일제하의 불교계의 광복운동 등을 비중있게 싣고 있다.

이밖에도 1932년 〈불교〉지 7월호에 실린 〈회심(回心)〉을 현대문으로 개작한 단편소설 '꿈'을 비롯 희곡, 영화, 연극 등 불교문학 부문과 신간안내, 스승예찬 등 신행을 계도하는 기사 등을 골고루 싣고 있다. 〈값 7천원〉

인터뷰 '불교저널' 박경훈 편집인

"21세기 불교 이끄는 열린잡지"

"〈불교저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이에게는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불교신문, 조선일보, 법보신문 등에서 활동하면서 신문의 틀을 다지고 오랫동안 역경(譯經)을 해 온 박경훈 편집인은 〈불교저널〉 창간에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박경훈씨는 "근대이후 불교계 잡지는 많았지만 종합잡지는 전무했다"며 "시야를 넓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열린 잡지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씨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지구촌 불교소식을 지면에 대폭 할애할 방침이다.

詩僧의 문체로 푼 宗門第一書

오현스님 역해 '벽암록'

원문 뜻 살리며 문학적 해설붙여 선사들의 화두 고스란히 전달

불립문자(不立文字), 선은 문자나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교적에 못지 않다. 오히려 '문자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벽암록〉 〈종경록〉 〈경덕전등록〉 〈조당집〉 〈무문관〉 〈선문염송〉이 대표적인 선서이다.

신간 〈벽암록〉은 오현스님(백담사 무금선원 회주)이 원문을 번역하고 사족(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우선 〈벽암록〉이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자.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로 꼽히고 있다. 이 책의 저본은 설두중현(908~1052)이 선문의 1천7백가지 공안 가운데 100개의 선화를 가려뽑아 송(頌)을 붙인 〈송고백칙〉. 이 책은 원오국근(1063~1135)이 수시(受示)와 착어(着語) 평창(評唱)을 덧붙여 〈벽암록〉을 만들면서 부터 최고의 선서로 평가받게 됐다. 책명이 된 '벽암(碧巖)'은 원오선사가 머물던 영천원 방장실의 편액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최초 간행 이후 수많은 선승들에게 애독되자 선의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해종고(1089~1163)가 판본 자체를 불사르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이 분서(焚書)사건은 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 책이 비록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깨달음의 세계에 근접해 있음을 반증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벽암록〉이 '종문제일서' '선시의 백미'로 평가받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이자 수행자인 오현스님이 동문서답식의 선화를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사족이다. 최근 출판가엔 관련 서적이 출간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당시 선의 체취와 시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벽암록〉 원문을 두번씩이나 사경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속살까지 이야기하듯 풀어가는 오현스님 특유의 사족은 빼어나다. 가령 제19칙 '구지의 손가락 한개'는 한송이의 꽃속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한 시인의 시를, 제35칙 '앞에도 셋셋 뒤에도 셋셋'의 경우 루소의 〈참회록〉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등 각 칙마다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현대인의 생활과 가장 근접하게 이끌어 따뜻한 인간애마저 풍긴다. 또 각 칙마다 등장하는 선사들의 행장까지도 자세히 수록해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책은 저자 특유의 풍부한 문학적 사족을 통해 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뿐 아니라 화두를 참구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에겐 이 책이 선을 모르는 이들이 문자에 몰입케 할지도 모르는, 부질없이 저지른 허물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서문에서 오현스님은 "나의 사족은 쓸데없는 '사족'에 불과하다. 원오의 수시와 설두가 간추린 본칙 그리고 송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며 "눈밝은 거북이 사냥꾼에게 내 목숨을 내놓은 바이다"라고 적고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이우상씨의 육아소설 '아빠, 해님집은 어디야'

"하은아, 하얗게 널려 있던 눈꽃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음~. 풀들이 배가 고파 먹어버렸나 봐"

96년 불교문학상 공모에서 장편소설이 당선됐던 작가 이우상씨가 육아소설 〈아빠, 해님 집은 어디야〉를 내놓았다. 딸 하은이가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순간순간의 경이로운 상황을 포착한 글모음이다. 이 책은 평범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8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빛과 그늘 속을 오가며 겪은 사랑이야기를 담은 대화체 육아소설이다. '아이에게 배운 19가지 행복, 아이에게 배운 19가지 지혜' 등 38편의 일화 속에는 진솔한 삶의 행복과 지혜가 녹아 있다. 〈동쪽나라 刊, 값 6천원〉

동국대 역경원 '석가보' 등 3권 출간

동국대 역경원에서 〈석가보 外〉 〈불모대공작명왕경 外〉 〈어제연화심륜회문게송〉 등 3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석가보〉는 5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전기이다. 먼저 석가족의 시조와 계보를 서술하고, 탄생에서 득도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죽림정사와 기원정사의 조성 연기, 탑과 불상의 조성 연기, 석가모니 열반과 다비이야기 등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불모대공작명왕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성 제다 숲에 있을 때, 독사에 물린 길상비구를 위하여 아난에게 대공작명왕다라니를 설하여 길상비구를 구했다는 공작명왕 다라니의 공덕을 설한 내용이다. 〈어제연화심륜회문게송〉은 송나라 태종이 만년에 불교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지은 게송들을 모은 것. 심자정회문(心字正廻文)·침자정회문(侵字正廻文)·침자도회문(侵字倒廻文) 등 4자 4구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역경원 刊, 값 각권 1만5천원〉

강원 사찰교재 4권 완간

승가대학(강원) 사집과 교재가 통일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 교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도서〉와 〈절요〉를 펴낸데 이어 〈서장〉과 〈선요〉를 출간함으로써 사집과 기본교재 4권이 완간됐다. 사집과 교재 편찬 목적은 강원마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형태와 토씨가 다른 점을 통일하기 위한 것. 교재의 특징은 기존 교재의 오(誤)·탈(脫)·이자(異字)등을 바로잡았으며, 각 교과마다 고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본 목록을 첨부했다. 또 각 교재마다 상세한 주를 달아 초학자부터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값 서장 2만2천원, 선요 1만2천원〉

새로나온 책

▲파문= 세상이 혼탁하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부처님. 이 책은 지금이 미륵부처님이 나타날 시기로 판단하여 어지럽고 중심이 없는 현대인들을 정도의 길로 이끌어 주고자 쓴 책이다. 화두를 통한 깨침에 대하여, 인간의 고뇌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점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태준. 〈부다가야 刊, 값 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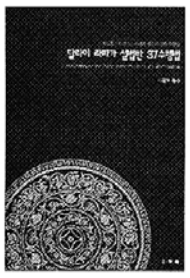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다음 세기에 가장 주목받게될 것으로 알려진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이해시키는 책. 저자 문창옥은 화이트헤드철학 전반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신의 소화된 언어로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전모를 파헤친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화이트헤드철학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통나무 刊, 값 9천8백원〉

▲부처님께= 전국 불교학생회 포교지로 21년동안 매주 발행되고 있는 '법보'지에 발행인 정완석씨가 쓴 편지 모음집. 1983년 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모두 200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포교하자'라는 포교에 대한 편지부터 저자가 청소년포교현장에서 느낀 단상들을 적고 있다. 부록으로 관음예문과 법보발행 약사가 수록됐다. 〈우리 刊, 값 1만원〉

화제의 책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창호 옮김

근기별 보살의 37수행법 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이 닦아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을 설명한 책.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37수행법〉은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1974년 보드가야에서 티베트 불교 수행의 입문서 〈보살의 37수행법〉을 3일동안 설법한 내용이다. 첫날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근기의 수행, 둘째날은 중간 근기를 지닌 불자들에게 필요한 수행, 셋째날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높은 단계의 수행을 설했다.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서이자 수행서이다. 〈정우사 刊, 값 6천원〉

화제의 책

이은윤의 화두이야기 이은윤 지음

새 시대 이끌 사상적 대안 찾기

새 시대를 이끌 사상적 대안은 무엇인가. 신간 〈이은윤의 화두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책. 현대인이 가장 고뇌하는 자아상실의 문제와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환경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테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부 인간의 본래 모습, 2부 자연의 섭리 등 28개 선문답으로 구성. 1부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란 어떤 것이며, 참된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2부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 평상심을 따라 살며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만 새로운 천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刊, 값 8천원〉

화제의 책

천수경 천명일 지음

천수경의 깊은 뜻 알면 믿음 확고

"독송집에 있는 〈천수경〉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경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경문을 주의깊게 보는 순간 나의 어리석음에 깜짝 놀랐다."

부산불교대학에서 〈천수경〉 강의 부탁을 받고 신비로운 경임을 알게됐다는 천명일씨(부산 설원장)가 천수경문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심을 설명한 〈천수경〉을 펴냈다. 저자는 〈천수경〉을 굳건한 믿음 하나로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의 경이라고 말한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원전에 대한 내용만 적고 있다. 특히 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배(三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지혜의 나무 刊,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 민 황	정 우 사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4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 비	불 일
5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6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7	길 끝나는 곳에 앉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9	안으로의 여행	송 기 원	문 이 당
10	스님은 황금을 메고…	김 영 만	다 림

구입문의:(02)737-0695

1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우리조상 전도발원 후손들의 보은공덕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672-2448

2 奉 일시 :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行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한국불교법륜종 보현정사 ☎ 276-1730

3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조상님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금성산 다보사 ☎ 334-4201

4 막대구멍 5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고 연민하심 한결같고 끊임없네
다섯은 아기에게 먹이느라 당신은 안잡수고
쓴것은 삼키면서 찡그린적 한번없네.
— 부모은중경中 —

◉ 홍보용(1번~3번)
길거리, 절입구
(90Cm×6m)
1장당 40,000원

◉ 장엄용(4번~5번)
법당외벽, 절입구
(90Cm×2m)
1장당 30,000원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의 높은 은혜 하늘에다 비기리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아무리 크다해도
어버이의 큰 은혜에 견줄 수 없어라.
— 부모은중경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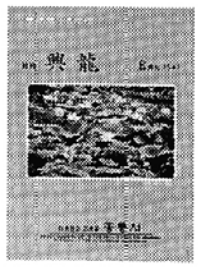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93-6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 어른되니 그 분 이미 세상에 없네.

8月 맞춤사보 (특집) 백중영가천도법회

우리 절 편집실처럼 스님의 뜻을 헤아려, 필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보(월간, 격월간, 계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신도교육과 포교, 행사안내와 신도사업체 홍보, 사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사보제작 5년 역사를 지닌 불교서원과 만나십시오.



8월호내용
특집(1)백중(우란분절)과 영가천도
특집(2)불교에서 바라본 효도와 조상공경
특집(3)조상천도기도로 다시 찾은 가정의 평화

사보(1) 20쪽, 표지칼라
기본 (100부) 10만원, 추가 100부당 4만5천~5만5천원
사보(2) 8쪽, 흑백인쇄
기본(100부) 6만원, 추가 100부당 2만8천~3만5천원
※ 사찰 전용지면(4쪽)에 스님설법, 행사안내, 신도 원고, 신도사업체 후원광고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개량형 영가위패(1장에 15영가 위패)
각종 현수막(행사안내,부처님 말씀 등),책상용 명패(주지,사무장)
상패(임명패,감사패), 상장, 수계증, 사찰기, 조의기 등도
주문제작, 통신판매 합니다.

※ 주문입금계좌:(농협 613-01-092143 예금주 : 선우), 입금시 사찰명을 꼭 기입바랍니다.

영가를 천도드릴 때
염송하는 각종 "왕생기도발원문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왕생기도와 천도재

(구)『무상법문집』 증보판 4×6배판, 값 3,500원

왜 그리고 어떻게 천도기도를 드려야 하며
실제로 기도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각종 왕생기도문(자신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 올리는
극락왕생기도, 상가조문시,
낙태아천도재, 49재 등
천도재에 올리는 왕생기도)과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인연공덕, 그리고 천도기도체험기는 사찰에서 필요한 왕생기도
신행지침서(백중, 49재 법공양판)가 될 것입니다.

※법공양을 원하시는 분은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에서 법공양판 제작시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불교서원은 불교서점(전회주문 통신판매, 법공양 할인판매)와
불교전문인쇄, 출판사(7년 역사)입니다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